



없다. 다만 臺와 杯身에 各二條의 隆起線을 붙혔을 뿐이다.

이러한 碗形과 臺의 接着部에 即全體의 中間에서 若干 밑으로 집신形이 비스듬히 달려있다. 거이 長橢圓形의 신바닥위에 새끼를 끈 모양으로 集신 形態를 나타냈다. 腕 碗部 周圍에 거의 圓形으로 된 끈을 둘러고 이것을 바닥에 固定시키기 爲하여 같은 形으로 前後에 一條式 左右에 二條式의 끈을 느리고 한쪽에는 圓形 끈에 붙혀서 半圓形으로 바닥과 連結시키고 있다. 이것이 集신의 코를 나타낸듯하다. 그리하여 全體의 모양이 集신 밑에 臺가 달리고 集신 위에 碗이 붙은것 같다. 이러한 土器가 果然 實用에 依어졌는지 아마도 實用品은 아닌듯하다. 如何든 意匠이 奇拔하며 才致있는 小品이다. 新羅土器裝飾中 璣珞같은 燃糸形의 줄거리를 使用한 例가 있기는하나 끈 숨씨가 이와는 다르다.
全高 一一·九 cm, 口徑 六·一 cm, 底徑 七·九 cm, 集身形長 一一·五 cm, 幅 五·八 cm.

慶州博物館에 여기 紹介하려는 異型土器一點이 所藏되어 있는데 이 土器는 解放前부터 日本人이 所藏하였던 것인데 解放後 慶州博物館에 收藏되었고 얼마안되어서 六·二五 動亂當時 다른 貴重遺物들과 함께 美國으로 移動되었다가 還收된 것이 다. 따라서 이 土器에 對한 關係知 見은 전혀 알려진 바 없다. 全體의 形態는 有臺 碗形의 中央에 集身形이 附着된 것이다. 臺의 底部는 恰恰 넓어졌고 碗身은 다른 土器에서 보는바와 다름없는 形態이다. 全體가 灰黑色을 띠고 있으며 表面에는 아무 裝飾이 없고 臺에 透孔도

龍仁 龍德寺의 石像 數例

文 甲 洙

龍仁郡 二東面 墨里 所在 龍德寺 ①라는 小庵에서 遊戲坐像外 石佛數點을 過眼한일이 있어 그 概略을 적고자 한다.

一、遊戲坐像

全高 四〇 cm 에도 미치지 못하는 小像이나 花崗石材로서 頭部와 左手가 缺損되어 있을뿐 比較的 完全하다.

三道의 痕跡이 남아있는 像은 寶座에 鎮속히 걸터앉아 가슴을 쪽편 品이 辟 堂堂하며 靑상다리로 踞한 오른 발은 滿開한 蓮꽃위에 사뿐히 앉고 왼 발은 안쪽을 向해 무릎을 굽혀 들어서 中央에 뭉고 있다.

바른손은 팔꿈치를 굽혀 쳐들었으나 아깝게도 팔목이 缺損되었으며 拇指가 磨滅된 왼손은 무릎위에 앉고 있다(이와 直線을 내리그은 處에 若干外側으로 기운 蓮봉오리가 滿開된 蓮꽃과 對照되게 놓여있다).

크고 아름다운 璣珞이 兩어깨에서 내려져 胸部에 자리잡고 한가닥이 袂衣의 結帶에 느러져 있으며 왼쪽 팔에는 碗釧으로 보이는 裝飾이 있어 그 아래로 法衣가 펼쳐져 있다.

通肩의 法衣는 袂衣위를 흘러 腹部에서 整齊한 U字形을 그리면서 纖細하고 優麗活達하게 펼쳐져 있다. 원편 무릎을 덮은 衣紋은 孤線의 주름을 그리면



서 내리위쳐 있고 옆자락의 衣紋은 大膽한 手法으로 몇자락이 젓혀지면 서 寶座의 下部에까지 내려져 있다. 오른편 무릎을 덮은 衣紋은 裙衣자락에 이어져 「之」字形을 그리며 蓮花를 밟고 있는 발목을 감싸고 있으며 옆자락의 衣紋도 寫實的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正面과 兩側에는 雍渾 強靱한 옷주름이 나타나 있으나 뒤로 갈수록 漸次略式化되어 背面에는 何等의 彫飾이 없고 다만 光背孔으로 보이는 經四、길이 四cm의 圓孔이 三分之二쯤 되는 上部에 있을 뿐이다. 臺座로 고였던 痕跡도 없을 뿐더러 底面이 長方形 그대로여서 一石으로 遊戲坐 ②를 彫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實測値는(單位cm)

現高三九 肩幅二五 胸幅一二 膝幅二八

로서 全體의 肉體의 表現을 減하고 法衣의 表現을 強調한 느낌을 준다.

二、石佛坐像

亦是 頭部가 缺損되어 있고 左手의 指端과 膝部에 若干의 磨滅이 있는 現高一八 膝幅一九 胸幅一二cm의 花崗石 小像이다. 肩胸部와 兩手が 豐滿한데 左手는 膝部 中央에서 좀 左側으로 내려뜨려 內掌을 하고 右手는 팔꿈치를 굽혀 臍前에 뭉치고 指端을 좀 오무린듯한데 內掌한 손목에는 念珠를 걸치고 있는.

通肩의 袈裟를 입고 그 위에 法衣를 메고 있으며(왼편 어깨에서 二條의 紐帶가 바른편 허리에 이르고 가슴에는 結帶가 보인다) 數條의 옷주름이 兩手를 거쳐 兩膝을 덮고 있으며 後面에도 線刻으로 뚜렷이 衣紋을 나타내어 法衣의 表現에 心慮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興味있는 것은 兩膝 中央部의 突出部分이다. 衣紋으로 가리워져서 발가짐을 알 수 없으나 발을 무릎위에 얹은 形態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왼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있는 狀態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서 본다면 前記 遊戲坐의 例와 같이 이것도 安座像이라고 볼이 妥當하며 遊戲坐의 彫成과 같은 意圖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推測된다. 이 외에도 거이같은 크기와 모양의 小座佛 六點이 있는데 한결같이 頭部가 破損되어 있다 아마도 毀佛에서 온 計劃의인 橫暴가 아닌가 생각된다.

以上 概略을 적은바와 같이 大膽한 衣紋의 處理라던가 堂堂한 蓮瓣、豐滿한 手足 등의 手法으로 이루어 보아 그 彫成時期는 麗代中葉以後로 下降하지는 않을듯하다. 遊戲坐의 발가짐이 흔히 볼 수 있는 半跏像의 그것과 正反對라던가 또 安座像의 발가짐이 格에서 벗어난것 등은 密敎系統의 破格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密敎盛行이 麗初에서 中期 前後였으니 이와 手法을 견주어 보아도 그 彫成時期가 符合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安座像이 遊戲坐보다 時期가 多少올라가리라고 보이기 는 하지만 大體로 麗初의 作으로 보아 可할줄 안다.

註

- ① 一名 窟岩寺라고도 하며 龍과 窟에 對한 갖가지 傳說이 있으나 文獻上의 記錄은 없다. 寺境 오른쪽에 麗代一般型으로 보이는 倒壞된 小塔一基가 있고 寺境은 大雄殿과 僧房一棟으로 된 조그만 規模이다. 僧房後側에는 幅二·五、高二、長五m餘의 窟과 幅一高一·五 長三m餘의 細長한 自然窟이 이어져 있으며 奥部에는 洞孔이 뚫려져 있다. 이 上下窟內에 數基의 石佛이 놓여 있는데 여기서 는 그中 特히 注目되는 二點만을 擇하였다.
- ② 慶北月城郡 祇林寺에 傳해 내려오는 遊戲坐인 乾漆佛(寶物 四百十五號로 最近에 指定되었음을 들 수 있다. 中央部에 뭉은 발가짐 이 이와 同一하다.

劉淑의 泛槎圖卷

崔 淳 雨

泛槎圖卷이라고 이름붙은 全二十九丁으로 된 小畫帖 하나가 國立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다. 원래 一九一七년에 사드린 것으로서 題箋에 「泛槎圖卷 姜晉喜署 孝里山房莊」이라 한 것으로 보아 高宗 純祖朝의 畫家姜璉熙의 舊藏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初丁에 泛槎圖라는 題銘이 있고 다음丁에 「泛槎圖 戊午 仲槎爲小棠一兄 嬰惠山淑」이라 題款한 水墨 淡彩로 된 海上難破圖한장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第三丁에 說明된 小